



서울, 테마산책길 | 숲이 좋은 길 | 노원구

태릉 백세길

100세 무병장수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다

걷는구간	백세문 → 맨발산책길 → 백세정 → 운무전망대 → 불암산 갈림길 → 제명호 → 서어나무군락 → 삼육대
걷는거리	3.7km
소요시간	60분
추천시기	봄·여름·가을
난이도	★ 초급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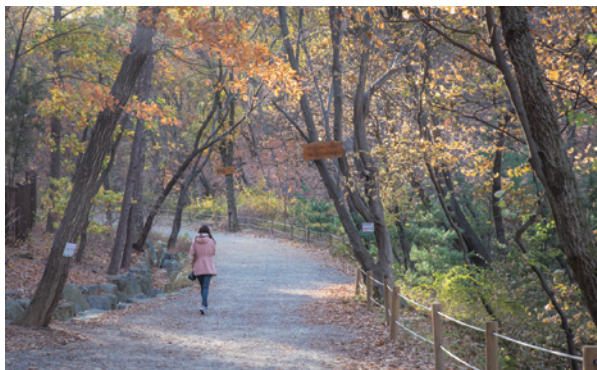
태릉 백세길은 노원구에 위치한 ‘불암산 둘레길’ 중에서 백세문부터 삼육대까지 3.7km 구간으로 걸을수록 ‘건강 100세’의 소망이 이루어주는 길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산세가 험하지 않고 흙길과 나무계단이 어우러져서 약간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진다. 가볍게 걸으며 불암산 능선 자락 곳곳에 펼쳐진 거대한 암반과 숲의 정취를 즐기기에 좋은 길이다. 한 번만 통과해도 백세까지 산다는 설을 가진 백세문을 지나면 길 양쪽으로 초록빛 나무가 넘실거리는 흙길이 시작된다. 중간에서 만나는 2.9km의 맨발산책길에서는 맨살의 발바닥이 땅 위에 닿는 순간, 시원한 흙의 감촉도 느끼고 가벼운 지압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이 길을 두 번 걸으면 이백세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묘한 기대를 품게 된다.



제명호는 삼육대 안에 있는 인공호수로 삼육신학원 원장을 역임한 이제명 (James.M.Lee)목사의 한국어 이름을 따서 붙였다. 둘레가 100m로 우리나라 대학 캠퍼스 호수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불암산 갈림길에서 삼육대 방향으로 들어서면 아담한 호수가 눈앞에 펼쳐진다. 산자락 밑에 폭 파묻혀 있는 제명호는 잔잔한 물결 위에 짙은 녹음이 드리워져 있어서 아주 호젓하다. 제명호를 한 바퀴 돌고 삼육대로 내려가는 길에는 생태계가 잘 보존된 오래된 숲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서어나무 군락지가 기다리고 있다. 서어나무숲이 내뿜는 천년의 기상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백세까지 무병장수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만 같다.

삼육대 경내의 서어나무숲은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제6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대학 숲'으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수상했다.





-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4번 출구로 나와서
15분 정도 걸으면 백세문이 나온다.
-  02-2116-3954 노원구청 공원녹지과
-  ① 이용시간 제한 없음
 식수대나 매점 없음
 화장실 없음
 유모차·휠체어 이용 불가능
 애견 출입 불가능

